

제 2부 청소년기는 발명된 것이다 Adolescence Invented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중반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활 여건의 변화, 개념의 변화, 법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수천 년 동안 성인으로 취급되던 10대들이 어린이들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서구 문화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장과정의 새로운 ‘단계’를 만들어냈다. 지금도 대부분의 언어권에서는 청소년기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들 없다. 영어에서 성인 여성은 여자(woman)다. 어린 여성은 소녀(girl)다. 그렇다면 청소년기 여성은 무엇인가? ‘젊은 여자(gal)’인가?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속어로 ‘소녀’라고 한다. 영어로 성인 남성은 남자(man)다. 어린 남성은 소년(boy)이다. 그렇다면 청소년기 남성은 무엇인가? ‘젊은 남자(guy)’인가? 이 단어를 사전에서는 속어로 ‘소년’이라고 한다. 당신이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guys and gals’라고 부른다면 당신은 그들을 소년과 소녀라고 부르는 것이다.

3, 4, 5, 6장은 어떻게 청소년기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10대를 성인이 아닌 어린이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정말 성인인가? Really Adults?

이쯤 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대부분의 역사를 돌아볼 때 10대들이 성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성인의 사고능력과 도덕적 결정 능력이 10대에게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0대가 성인같이 행동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이 정말 성인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성인처럼 행동하지 않는가?”

수천 년 동안 10대들은 성인으로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사춘기 때에 성적으로 성인이 된다고 정의한다. 그들은 신체적으로나 다른 모습에서도 성인이다. 물론, 성인의 전 생애를 볼 때 어느 정도 신체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언제 성인이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당신이 복용했던 일부 비처방 약품의 권장 복용량을 살펴볼 수 있다.

진통제 Pain Relievers

- Aspirin (Bayer) 아스피린 (바이엘)
- Acetaminophen (Tylenol)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 Ibuprofen (Advil, Motrin) 이부프로펜 (에드빌, 모트린)

지사제 Antidiarrheals

- 차살리실산 비스무트 (펩토-비스몰) Bismuth subsalicylate (Pepto-Bismol)
- 로페라마이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모디움 A-D) Loperamide Hydrochloride (Imodium A-D)

알레르기/충혈 완화제 Allergy/Decongestants

- 디펜하이드라민 HCl (베나드릴, 베나드릴-D) Diphenhydramine HCl (Benadryl, Benadryl-D)
- 슈도에페드린 HCl (슈다페드, 베나드릴-D) Pseudoephedrine HCl (Sudafed, Benadryl-D)

모든 약들은 “성인과 12세 이상의 어린이” 또는 “성인”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복용시키지 말라는 경고문을 표기함)을 위한 복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 제약 회사들도 비처방 의약품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10대를 성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장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사춘기 때쯤에 인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을 보았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성인이라면, 왜 그들은 성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한 성인들답게 행동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거의 2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조기 성숙병 The Disease of Precocity

사춘기 연령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지적 성숙이 더 일찍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더 이른 나이에 성인과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32년에 아메라 브락햄(Amariah Brigham)은 “정신의 조숙함은 거의 대부분 질병이다”라고 말했다. 즉, 이전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성인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으로 여겨진 것이다.

1843년 7월 15일에 발부된 Common School Journal 에 의하면, “만약 한 아이가 조숙함의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책을 멀리하게 하고 야외에서 떠돌고 놀게 하거나, 신체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즉, 또래에 비해 조숙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책을 회수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내보내거나 공예 완구를 주고 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어린이들을 “영재아”라고 부르고 또한 이들을 속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조숙한 자녀들에 대해 몸서리쳤다. 문화적으로 새롭게 형성된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이 너무 빨리 성숙해지는 것을 막았다. 어떤 이에 대해 “일찍 익으면, 일찍 썩는다”고 말했다.

결핵에서 정신 이상에 이르는 모든 질병과 관련된 조기 성숙병에 자녀들이 걸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다. 찰스 월섬(Charles Folsom)의 “정신이상 예방”이라는 논문이 있다 [미국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논문 및 보고서, 1881]. 이 논문에서 그는 “소년, 소녀 시절에는 학교 교실 안에 있는 나쁜 공기 속에 갇힘으로 오는 위험, 분주함과 걱정, 그리고 여섯, 일곱, 또는 여덟 분야의 학업에서 오는 압박감, 시험 경쟁, 포상, 야외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 불충분한 식사 시간, 저녁 학습, 피곤한 아침, 몇 년 후에는 이미 너무 익숙한 것들로 인한 쇠약함이 온다”고 말했다. 즉, 학교가 당신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느린 성장 발달을 바라는 마음은 한 세기 이상 지속되었고 오늘날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1988년에 버니스 벌크(Bernice Berk)가 Good Housekeeping이라는 잡지에 “도와주세요! 11살에 벌써 10대 소녀랍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1984년에 크리스천 부모들을 위해 발간된 Parents & Teenagers란 책자의 한 장에서 레리 리차즈(Larry Richards)는 “10대 자녀와 함께 나는 청소년기 과정을 늦추는

청소년 문화로부터 격리시켰다.” 청소년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그는 그의 자녀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운전 면허증을 따지 못하게 했다.

예언대로 성취되는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2백년 (또는 2천년) 전 사람들이 10대가 성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10대가 어린이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10대들은 몇 세기 전에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은 그 말처럼 성인같이 행동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미숙하고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말처럼 아이같이 행동한다. 1960년대 심리학자였던 로버트 로젠탈 (Robert Rosenthal)은 사람들이 (심지어 동물들도)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실험을 했다.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로젠탈(Rosenthal)과 제이콥슨(Jacobson)은 1968년에 저술한 그들의 책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들은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만성형”을 선별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무작위로 학생의 약 20 %를 선발했고 교사에게 말하기를 이들의 20 %는 향후 8 개월간 놀라운 지적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8개월 후 예상했던대로 “만성형” 학생들의 성적은 더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이 흥미 있어 했고, 호기심을 가졌고, 행복해 했고, 주목을 끌었고, 적응을 잘하고, 다정했다고 교사들은 말했다. 그들의 학업 성적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 객관적 지능검사 시험성적도 높았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10대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되기를 기대했고, 그들은 그 기대대로 성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10대가 미숙하고 무책임한 어린아이라고 여기고, 그들 또한 그렇게 행동한다. 그들이 미성숙하고 무책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인으로 대우해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눈에 띄지 않는 성숙함 Maturity Unperceived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것이면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처럼 행동하더라도, 부모는 그것을 못 볼 수도 있다. 1970년대 초 사회학자 데이비드 로젠한 (David Rosenhan) 은 기대가 지각에 대해 미치는 힘을 보여주는 기발한 연구를 실시했다. 로젠한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정신장애’를 발명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동료 일곱 명은 정신 병원을 찾아가서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쿵” 이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위조된 직업을 제시하고,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 외에는 자신들의 실제 신상명세를 사용했다 (사전에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검진받았다.)

그들은 모두 정신 병원에 입원시켜지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다. 그들은 평균 19일 (9-52일) 간 입원해 있는 동안 총 2,100알의 약이 주어졌고, 정신분열증으로부터 치유된 것처럼 퇴원했다. 이것은 그들이 정신분열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휴면 상태에 있으나 나중에 다시 발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에 대해 한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그 환자들의 모든 행동들이 정신분열증이라는 꼬리표에 비추어 해석되었다. 정상적 행위가 간과되거나 잘못 해석되었던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충돌이 깊은 정서적 장애의 지표로 보여졌던 것이다. 심지어 메모장에 낙서하는 것도 일종에 심리적 장애의 증상으로 보여졌다.

정신 병원의 직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곳에 있던 그 외 몇몇은 알아봤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의 실제 환자들은 그 거짓 환자들이 정상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환자들은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상적인 행동을 해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부는 이같이 말했다: “당신은 이곳 환자가 아니죠, 그렇지요? 당신은 기자입니까?”

로젠한은 그 병원 직원들이 무능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의식적으로 그 증거물을 꼬리표에 맞게 맞추려는 노력의 증거가 없었다. 직원들은 그저 그들의 일들을 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 꼬리표의 의미가 너무 강했으므로 그 직원이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만약 그런 행동들이 다른 상황에서 관찰되었다면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미성숙하고 무책임하다고 여긴다면, 당신의 행동은 그 맥락에서 해석될 것이다. 당신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행동은 그렇게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문화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What can adolescent TCKs do?

이 질문에 정말 좋은 대답은 없다. 청소년기의 개념은 서양 문화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10대를 보낼 동안에는 절대로 법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당신의 부모에게 자신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당신은 다음 네 가지를 꼭 실천해야 한다.

- 예언대로 성취되는 예언을 극복해야 한다. 만일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어린이로 생각한다면, 당신의 자연적 성향은 마치 어린이같이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런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 부모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만일 당신의 부모가 아직도 당신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의 눈 앞에서 당신이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행동을 할 때조차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 부모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매우 복잡하다. 그것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파괴하는 것은 매우 쉽다.
- 제3문화 자녀라는 꼬리표를 극복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제3문화 자녀라는 신상명세에 대해 부적절한 선입관을 가지고 대한다면, 당신은 부차적인 오해를 극복해야 할 수도 있다.

첫째, 예언대로 성취되는 예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노력과 훈련이 소요될 것이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당신이 속해 있는 문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성인으로 대우받기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어린이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성인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흐르는 대로 흘러 가기’보다 의식적인 당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결과로 당신의 또래 친구들과한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만일 당신의 부모가 기대가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당신의 성숙함을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모의 관심을 당신의 성숙함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로젠한이 했던 연구에 대해 모른다면, 당신은 위에 설명되었던 “눈에 띄지 않는 성숙함”의 부분을 그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당신이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의 깊게 봐달라고 말하여 당신의 행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봐주기를 부탁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당신을 아직도 어린이가 같다고 확신한다면 당장 급격히 변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시간이 걸린다.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몇 년이, 아니면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당신은 부모님에게 말로만 당신이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성숙함과 책임감을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보여야 한다. 신뢰를 구축하는 비결은 신뢰할 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첫째, 연인들은 사귀면서 점점 신뢰를 쌓아간다. 신뢰와 헌신이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두 남녀는 약혼을 하고, 서로의 신뢰감이 더 높아졌을 때에 가서는 서로 자신에게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된다. 그들은 신뢰와 헌신이 그 질문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결혼한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불행하게도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 무너져버린 신뢰를 다시 복구하는 것은 처음 시작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앞의 예를 다시 든다면, 당신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고 그와 결혼을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던 어느 날 교내 후미진 계단 밑에서 사귀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열정적으로 포옹과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당신이 가졌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성숙함을 지켜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 한번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 그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문화의 자녀로서 당신은 예언대로 성취되는 예언과 잘못된 오해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한 제3문화 자녀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면에서, “제3문화 자녀”라는 명칭에 대해 감사하지만, 또한 그 명칭이 일종의 꼬리표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이들이 그들 성장기를 다른 문화권에서 보냈다고 해서 동일한 정도의 제3문화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개인의 성격, 실무 능력, 소속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 관계 유형, 성장기 문제, 풀리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의 부모님이나 기관에서 제3문화 자녀라는 꼬리표를 당신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부적절하게 적용할 때와 동일한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